전진! 화합의 한마당

93년도 봄 대동제개막, 전전한 대학문화건설

93년도 봄 대동제가 오는 19일부터 양캠퍼스별로 거행된다.

지난해 대동제가 교제투합의 의 지연으로 산발적·고립적 모습을 보인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된것과는 대조적으로 올해에는 각과·단대·특위별 행사가 다채롭게 마련되고 있다.

이번 대동제는 주점및 가판대들을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소비·향락적인 대동제 문화를 일소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며 날짜별 행사일정은 아래표와 같다.

[서울캠퍼스] 19일 경희가족 자전거 대행진에이어 '자주경희제'를 개막한다. 이어 20일에는 과·단대별 대동제 일정이 진행되고 셋째날인 21일에는 '통일노래한마당'등 경희 화합의 장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23일에는 교내장애물경기인 '동일대장정'에 이어 대운동장에서의 폐막식을 끝으로 대동제를 마감하게 된다.

[수원캠퍼스] 19일 각종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외대앞 민주광장에서의 개막제를 시작으로 20일은 각단대별 한마당의 순서가 마련된다. 건전한 우리문화 놀이들로 진행될 이날 단대행사에 이어 21일은 화합과 전진을 위한 '경희가족 한마당'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화·정미경 記者〉

한의대 집단유급 직면

수업거부 2달째를 맞고 있는 본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원 집단유급될 상황에 직면했다.

약사법 시행규칙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3월18일 수업거부를 결의한 한의대생들은 '한학기 수업일수는 16주 이상으로 한다'는 학칙으로 볼 때 오는 18일까지 학사일정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이와관련해 최동기(한의본·2) 동민연대사업부장은 "지금으로선 유급의 걱정보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자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며 유급도 불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의대 학생회는 오는19일 비상총회를 갖고 이후의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전한련)은 지난 11일부터 보건사회부와 국회의사당 항의방문과 본교 노천극장에서 연합집회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의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올 가을 정기국회까지 한의대생들의 철회요구운동직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 총학장회의'개최

대학의 자율화시책과 자정화 논의

전국대학 총·학생회의가 지난 4월 30일 열렸다.

잇달은 입시부정사건의 한파속에서 열린 이번 총·학장회의는 △대학의 자율화 시책 △대학의 책무성 제고 시책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과감한 개혁 추진 △새 대학입시제도의 조기정착 및 무정방지 대책 △교육 및 연구 여건의 지원 강화 등과 관련해 폭 넓은 의견이 교류되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의 자율화 시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교육여건 평가결과 및 정원조정 결정 기준은 완전공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칙변경을 현행 인가제에서 보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학법인의 재정운영과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도서관 24시간 개방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과감한 개혁추진에 관련해 '교원 공개채용 전형원칙'에 의해 신임교원을 임명하고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며 단일공사로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동 사업 기본계획을 사업시행 30일전까지 사전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지리학과 실험실습비 문제 쟁점화

문리대 지리학과의 실험실습비 문제에 합의서 작성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공과목 수업거부 20일째를 맞고 있는 지리학과 학생들은 지난 7일 원학회 현지리학과 학과장과 합의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원학과장은 구두합의는 가능하나 합의서를 문서화할 수 없다고 주장해 합의서가 문서로 작성되지는 못했다.

학생들은 요구사항은 △92학년도 실험실습비 사용에 대한 김중규 전학과장의 유감표명 △실험실습비의 예결산 공개 △전학기 성적 3·0이상인 과대표에게 도범장학금 지급 △교수채용시 학생회와 논의할 것 등이다.

연구처 92년도 연구비 2차지급

연구처는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92년도 2차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연구비는 지난해 10월 8천5백56만원의 1차 지급에 이은 나머지 40%로 액수는 5천8백4만원, 수혜인원은 8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비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60%가 지급되며 중간보고서를 제출할때 나머지가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본교의 발표는 문은 예체능계를 제외하고 모두 7백96편으로 전임교원 1인당 2.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단대별 종합시간표 2학기 시행

강좌집중, 강의실 부족등 해결목적

본교는 93년도 2학기부터 종합시간표를 작성, 시행할 방침이다. 종합시간표란 단대별로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교무처가 종합적으로 시간표를 작성하여 각 단대에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강좌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교원의 편의를 위하여 각 단대가 특정요일, 특정시간에 강좌를 집중배치함으로써 나타나는 강의실 부족 등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에 따라 2학기 시간표는 주 6일간 교과목 시간수 균등배분, 3~5교시 중 점심시간을 위한 공강 배치, 실험실습시간·체육시간 전후 1시간 강의 지양, 3시간 연속강의의 지양, 전임교수의 주당 4일 이상 강의(수원캠퍼스 출강시 주당 3일 이상)등의 방향으로 지난 12일 이미 작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처 관계자는 종합시간표를 작성함으로써 △강의실 사용의 극대화 △수강과목 선택의 폭 확대 △수업결손 방지 △체계적인 학사관리 △수업활성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정된 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시간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시간표를 작성할 경우 개인사정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전임교원의 불만을 살 수 있고, 시간표 변경이 불가능하여 시간 강사 선임에 어려움이 있으며 강의실 변경 및 분반이 불가능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파공이동통신 지원금수혜

실습기자재등 2억2천여만원

본교 전파공학과는 한국이동통신(주)의 '전파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에 한국이동통신(주)로부터 모두 2억2천2백만원의 지원금을 수혜받게 되었다.

이번 지원에 따라 전파공학과 정재영군 등 2학년 8명, 김홍구군 등 1학년 8명이 1인당 1백만원씩의 장학금을 수혜받고 2학기에는 1학기 성적에 따라 16명이 별도로 선정·수혜될 예정이다.

또한 전파공학과는 다기능 스펙트럼 분석기 1기, 전자파 차폐형 실습구조물 1기, LCD VISION 1기, 오디어 시스템 1세트 등 1억9천만원 상당의 관련실험실습기자재를 올해 6월 안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국이동통신이 전파관련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고 있는 이 지원제도는 92년도에 본교, 연세대 등 전파공학과 신설대학에 총 20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는 대상학교에 4개교를 추가하여 총 19억3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수원 봄농활 실시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1일부터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봄농촌활동을 실시한다.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89년부터 경기도 평택지역에서 농촌활동을 벌여왔으나 올해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의 농촌활동 지역이 경기도 동부지역으로 바뀌면서 이천 지역으로 농촌활동을 가게 된 것이다.

쌀수입개방 저지의 결의와 여름농활의 준비작업의 형태로 진행될 이번 농활은 이천군 모가면과 설성면 등 9개면에서 약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 울	수 원
17 (月)		북한영화 '세상영'(13:00 1호관 시청각실)
19 (火)	경희가족 자전거대행진(9:30-17:00) 개막식(17:00 노천) 아마츄어 천문단 사진 전시회(잘살기탑) 생활놀이공동제 전시회(교시탑) 행글라이딩 모의 시뮬레이션(대운동장) 라미레즈 기념연주회(17:00-19:00 인간교실) 음대·체대 통합예술제(18:30)	교정제조부 시범(12:00 외대앞 민주광장) 태권도 시범단공연(13:00 〃) 종여 열린교실(13:00 한누리소극장) 라이온스 초청시범경기(아구장) 경탁시범강연(14:00 민주광장) 총학협 통일 8종 경기(14:00 공대운동장) 불파카오스·록페스틸벌(15:00 1호관시청각실) 개막제 봉수대 점화(16:30 민주광장) 바람개비 정기공연(14:00, 17:00 3호관 시청각실)
20 (木)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메이크업 공개강좌(13:00 학생회관앞) 경불회 불교관련 물품판매 COM·COM 컴퓨터 사주, 토정비결 거리문화제(17:00)-회기동 주민노래자랑 문화제 노래공장초청	공대한마당(13:00 통일광장) 외대·산대한마당(14:00) 경희음원 대제전(15:00 3호관앞 광장) 알다라공연(14:00, 17:00 3호관 시청각실) 아름다운 노래가요제(16:00 1호관 시청각실) 예수전도단 '해방'드라마공연
21 (金)	자주여성·민주남성통일한마당(14:00 노천) 통일노래한마당(16:00 노천)	경희마두축제(10:00 학생회관 로비) 교수·학생·직원 경희가족 한마당(13:00 공대앞 운동장) 탈부드 정기공연(16:30 1호관 시청각실)
22 (土)	통일대장정(13:00, 대운동장) 폐막제(17:00 대운동장)	

강의실 활용률 높일 종합시간표

▲수강신청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에게 있어 걸장이는 강의시간표이다. '이 강좌를 들고 문리대에 가서 교양과목을 수강해야지.', '다행히 시간표가 맞아 떨어지네. 조금 부끄럽지만 한번은 치루어야 할 홍역, 날린 과목 지금 해결해야지.' 그러나 막상 강좌가 시작되면 하얀 결표지에 깨끗이 인쇄된 시간표는 잘못된 것임이 드러난다. 수업시간은 겹쳐지고 학생들은 부라부라 수강신청을 정정하기 바쁘다.

▲교무처는 올해 2학기부터 강의시간표를 교무처에서 일괄 작성하여 단대에 하달하는 종합시간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다. 그동안 시간표가 한 곳에서 짜여지지 못하고 단대별로 작성됨으로써 적잖은 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대 교무실이 교수 편의 위주로 시간표를 만들다 보니 강의실 활용률은 93년도 1학기 문리대, 법대, 정경대의 경우 66%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생들은 그만큼 수강과목 선택에서 제약을 받아왔다. 또한 교원의 희망에 따라 시간표가 임의로 변경되기 일쑤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종합시간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빈 강의실을 찾는 것은 어려워지고 학기초마다 되풀이되는 수업결손도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 제도가 장점만 지닌 것은 아니다. 교수들의 개인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거나 시간표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여 시간강사 선임이 어려운 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대학원 강의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대학원 시간표가 조기 확정되어야 하고 강의시간 배정 전산화, 원로교수나 타기관 겸직, 타교 출강 교수의 강의시간 배려 등 검토를 요하는 사항도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득실을 따져볼때 새로운 시간표가 가져올 것은 득이 더 많음은 분명하다.

▲종합시간표 실시에 대해 교원들의 반응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대개 교수들은 2~3교시와 6~7교시 수업을 선호하고 단대별로 시간표를 작성할 경우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학교에 일찍 나와 종일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교수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교무처가 새 제도를 강행한 것은 박수를 보낼 일이다. 교수의 직장은 학교이므로 직업인으로서 학교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신용철 교무처장의 말은 되새겨봄직하다.

〈김중석 記者〉

서울 '광주항쟁 진상규명' 결의대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오늘 오후 3시 노천극장에서 '광주문제완전해결과 미국반대, 전쟁반대, 평화통일을 위한 자주경희 실천대회'를 갖는다.

이번 결의대회는 현정권의 개혁에 대한 본질을 폭로하고 반미자주화의 투쟁의지를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운회(국문·4)문리대 학생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결의대회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하여 '광주항쟁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연설이 있은 후 핵사찰 공방 국면을 합의서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대한 강연이 있다.

행사후 학생들은 청량리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주최로 '광주 민중항쟁 진상규명 촉구대회'가 대학로에서 있었다.

본교생들을 포함한 학생 시민들은 광주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약2시간의 집회를 가졌다.

"제자사랑 스승존경"

'제자사랑 스승존경 교수, 학생 동반 대회'가 지난 15일 교수·학생 등 약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산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을 출발하여 북한산 제17약수터까지 행진했다. 도착후 학생들은 교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었으며, 교수들은 학생들을 안아주어 답례했다.

점심 후에는 배드민턴 시합이 벌어져 정경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총학 기획부장 이세현(국문·4)군은 "동반대회는 교수, 학생이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노정 記者〉

재학생 주소 정정 안내

학사일정 안내 등을 발송하기 위하여 주소정정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재학생들은 동기간내에 주소를 확인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1. 확인 및 정정기간:1993.5.24(월)~6.4(금)

2. 확인 및 정정장소:학과사무실(주소록 비치)

3. 확인 및 정정방법:

가)주소불변시:주소록상의 주소가 정확한가의 여부 확인.

나)주소변경시:기존주소를 두줄로 삭제하고 변경주소를 우측 빈 여백에 "붉은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

수원캠퍼스 교무처장

공 고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사회진출준비위원회에서는 1994학년도 졸업생의 졸업준비금 수납 및 졸업앨범 사진촬영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졸업준비금

가. 내 역:앨범제작비 : 43,000원
기념품(사은품)비 : 13,000원
졸업장 케이스 : 1,500원
적 립 금 : 1,000원
합 계 : 58,500원

나. 납부일자:5월10일-25일까지

다. 납부장소:학교내 외환은행 출장소

2. 사진촬영

가. 전체일정:5월13일(목), 14일(금), 24(월), 25(화), 26(수), 27(목)-6일간

나. 졸업앨범 촬영 일정표
(장소:2호관 한누리 소극장)

	13(목)	14(금)	24(월)	25(화)	26(수)	27(목)
10:30	우주과	일문과	태권도	조경과	불문과	영문과
11:30	행정과	기계과	원자과	무역과	토목과	경영과
12:30			체육과			
1:30	서반어	중문과		회계과	물리과	식가공과
2:30	유전과	화학과	섬유과	환경과	사회과	산디과
3:30	도예과	산공과	건축과	전자과	수학과	원예과
4:30	화공과	임학과			농학과	전산과

3. 주의사항

가. 납부고지서는 각 학과사무실에서 배부함.

나. 앨범제작 수량은 위 기한내에 납부한 졸업 예정자수를 기준으로 함(별도 추가제작 없음).

* 자세한 문의는 사회진출 준비위원회(학생회관내, 전화 2804)로 연락바랍니다.

수원캠퍼스 사회진출준비위원회

김영삼 대통령의 5·18민중항쟁 관련 담화에 대한

한총련 대변인 성명

김영삼대통령이 5·18민중항쟁에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해결이랍시고 발표한 담화가 억제할 수 없는 분노만 더하는 끝이되고 말았다. 기념사업과 보상, 상무대부지 양도, 수배 전과에 대한 말소조치등을 거창하게 제시하면서 막상 문제해결의 핵심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정확히 빗나가고 말았다. 누가누구를 화합케 만들수 있다고 화합을 떠들고, 지나간 역사의 상처가 지금의 정부수립으로 치유되었다고 호언할수 있는가?

단정적으로 한총련은 밝힌다.

김영삼정부가 말로는 5·18민중항쟁, 6월민주대항쟁의 민주건통을 이어받은 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 항쟁의 발달과 근거가 된 군사독재정치의 뿌리를 단호히 배재하지 않은한 민주정부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책임자의 서열에 올라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 단죄하지않는 한 그들과 손잡고 정권을 잡은 '민주주의 배반자'의 감투를 김영삼대통령이 벗을 수 없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없는 한 5·18문제 해결은 있을 수 없다.

김영삼 정부가 그렇게도 자신하는 문민정부가 국민의 시험대에 올라있음을 한총련 백만학도는 분명히 경고해둔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한총련 백만학도는 다음과 같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 국민들에게 5·18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를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이를 구체적 실천으로 표현하는 5·18민중항쟁 지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다.

일단 임시국회회기로 따져볼때 서명운동된 것은 포함하여 특별법제정을 국회에 청원하는 방식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12·12사태 책임자와 맞물려서 5·18발포책임자 고소, 고발의 법적 근거나 청와대 청원의 자료로 삼을 것이다.

2. 일단 김영삼정부가 성의있게 대화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온 5·18단체와의 공식접촉을 계속지부하고 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책임자처벌을 회피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전체 5월투쟁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의 내용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한총련 백만학도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발포와 직접적인 책임자라는 국민적 동의에 바탕해 이들의 법적, 국가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 노태우 구속처벌을 위한 한총련 체포견사대'를 조직하여 국민들에게 5·18문제해결의 출발점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있음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적절적인 투쟁을 통해 이들의 죄상을 전국적으로 폭로하고, 역사앞의 단죄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3년 5월 14. 한총련